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5월 8일(월) 총 5매		
담당부서 글로벌도시기획과	담당자 • 글로벌도시기획팀장 김윤희 ☎440-3401 • 담당자 김지영 ☎458-723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17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전폭 지지
- 8일,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 유치 강력 의지 드러내 -
-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서 정상회의 개최돼야...성공적 유치에 모든 협력 약속”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일 계양구청에서 개최된 5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전원(10인)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군수·구청장들은 ‘2025 APEC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최적지가 인천임을 널리 선언했다.

군수·구청장 일동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APEC의 3대 핵심요소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홍보 등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이재호(연수구청장)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를 인천이

유치하게 된다면 경제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인천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에 앞서 APEC 인천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인천 시민원로회의(50명)를 시작으로, 남동구청 직원월례회의(1,000명), 인천시설공단 APEC 유치결의대회(200명),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130명) 등* 지난 4월말 현재 총 67건, 6천여명의 시민이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염원하며 지지에 동참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군수, 구청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에 감사하다”며, “APEC 인천 유치 열기를 각 지역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4년 상반기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공모 절차 준비를 이어 나가는 동시에 대내외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7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행사개요>

(행사일시) 2023. 5. 8.(월) 17:00~17:10

* 5월 군수·구청장 협의회 공식행사 시작 전 진행

(행사장소) 계양구청 영상회의실

(참석대상)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요내용) 군수·구청장(10인)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지지선언

<2025 APEC 정상회의 개요 >

(시 기) 2025년 11월(1주간) * 정상회의 외 연중 100여일 이상 회의 개최

(개 최 국) 한국

(개최도시) 공모²³·하반기, 선정²⁴·상반기(예정) * (유치추진도시) 인천, 부산, 제주, 경북 경주

(주 최) 외교부 및 APEC

(참여인원) 21개국 6,000여명(정상 및 각급 각료, 기자 등)

(주요내용) 정상회의, 최종고위관리 및 각료회의, 기업회의 등

붙임 1. 지지선언문 1부

붙임 2. APEC 인천 이미지

붙임1 **지지선언문**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

우리는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 인천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인천에서 개최되기를 적극 지지합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서 21개 회원국 정상을 비롯한 다양한 참가자가 한데 모여 아태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입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창출은 물론, 우리 인천의 역량을 전 세계에 펼쳐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은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란 APEC의 3대 핵심요소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도시입니다.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아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GCF 등 15개의 국제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UAM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대한민국 첫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될 만큼 완벽한 국제회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2018년 제6차 OECD 세계포럼 및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수·구청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을 적극 약속합니다.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3년 5월 8일

유 천 호 강 화 군 수

문 경 복 용 진 군 수

김 정 현 중 구 청 장

김 찬 진 동 구 청 장

이 영 훈 미추홀구청장

이 재 호 연수구청장

박 종 효 남동구청장

차 준 택 부평구청장

윤 환 계양구청장

강 범 석 서 구 청 장

